인구 5만명 붕괴 장흥군 '술렁'

올해 안으로 2개 실·과 폐지 불가피

정원 19명 감축…사무관 자리도 줄어

지자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구 감소로 인한 기구 축소로 장흥지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장흥군은 최근 2년째 인구 5만명선이 붕괴되면서 올해 안으로 군청 2개 실·과가 감축된다.

장흥군 인구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2년 연속 인구 5만명의 10% 미만인 4만5천명을 밑돌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연내 군 본청 2개 실·과를 폐지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군은 1차로 6월 말 재해재난과 하천관리, 장흥댐 유지업무를 관장하는 재난관리과를 건설과와 지역개발과로 통합하고 2차로 대외협력과 농수산물 판촉업무를 관장하는 마케팅과를 기획실 및 친환경 농축산과로 통합할 계획이다.

기구 개편에 따라 현재 14개 실·과인 장흥군의 기구가 12개 실·과로 줄어들게 돼 5급(사무관)이하 승진·전보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여기에 새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정원 조정에 따라 장흥군 공무원 19명이 감축 대상이어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일부 농촌지역 지자체들은 "인구를 기준으로 자치단체 조직을 조정하는 규정이 지역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난해 이 제도의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장흥군은 2개과가 폐지됨에 따라 직속기관으로 둘 수 있는 상하수도와 시설물 관리사업소 설치를 전남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道농기원, 국화차·음료 개발 성공

야생국화가 기능성 상품으로 변신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국화특화사업단(단장 유용권 목포대 교수)은 최근 야생국화인 감국과 산국을 이용해 국화차와 국화음료〈원내 사진〉 개발에 성공했다.

또 머리를 맑게 하는 기능성 베개와 천연 세정제 등도 개발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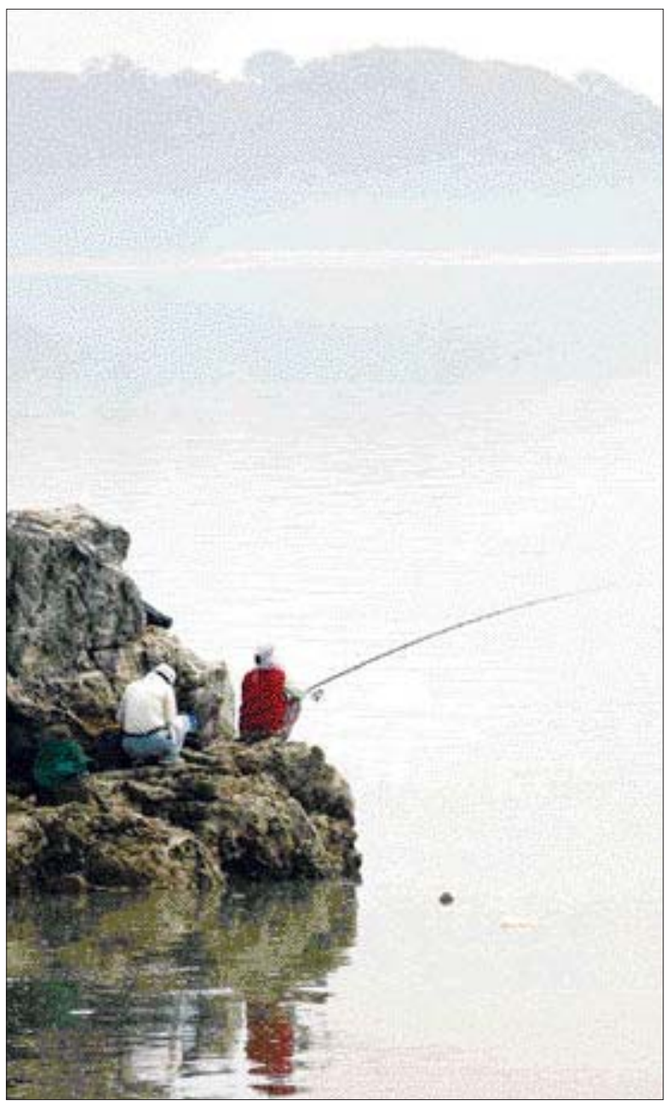
이처럼 천연 염색소재와 목욕용품 등 기능성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서 야생국화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가 틈새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 앞으로 국화향을 더 많이 함유시키는 기술개발 등 다양한 천연제품과 생활용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국화는 현재 나주·보성·담양 등지에서 10ha가 재배되고 있으며 보성군 문덕면의 한 농가에서는 인터넷 판매로 7천만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송기동기자 song@

강진만 '보리숭어' 낚시 삼매경



강진만의 숭어낚시가 제 철을 만났다. 숭어는 보리를 수확하는 이맘때가 가장 맛이 좋아 '보리 숭어'로도 불리며 낚시꾼들이 하루 10여마리씩 잡아 올리고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아이들엔 생태체험장…어른들엔 추억의 공간

나비엑스포 '친환경 농업전시관' 인기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벼·보리·콩의 성장 과정과 딸기·토마토·수박·참외 등 과일의 열매맺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전시관'에 관객들이 몰리고 있다.

엑스포장 북문 왼쪽에 자리한 1천300여㎡ 규모의 친환경농업전시관에는 각종 친환경 식물 250여종의 실제 재배 장면이 전시돼 체험학습장과 추억의 공간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봄·여름·가을 등 계절을 초월한 식물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 교과서나 그림책에서만 보던 온갖 식물들의 세계도 관찰이 가능하다.

다양한 과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벼와 보리·기장·수수·조·옥수수 등 작물들의 실제 재배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

또 토마토와 고추·오이·파프리카 등 채소류와 호박, 조롱박 등 박과류, 50여종의 선인장 등 식물도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특히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해 해충을 방제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들이 사진과 함께 전시돼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대나무 목초액' 표준화·상품화 박차

담양군·조선대 등 공동 추진

대나무 고장 담양군이 죽력(竹瀝·대나무 목초액)의 표준화·상품화에 나섰다.

담양군은 조선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죽력 생산업체인 바이오펜더에 용역을 발주, '죽력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과 이들 기관들은 오는 11월까지 죽력을 채취하는 대나무의 종류, 온도·건조시간 등 생산방법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현재 25가지 국내외 죽력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분석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성분의 독성을 억제하고 효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할 방침이다.

군은 표준화를 마친 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죽력이 식품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이나 식품으로 폭넓게 상품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죽력이란=대나무를 쪼개 항아리에 넣고 황토와 왕겨를 이용해 간접 열을 쏘여 약 성분을 추출하는 것으로 대나무 기름이라고도 불린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뒤로 가는 나주시 조경정책

고사한 종려나무 원인 분석 없이 또 심고

수십년된 조경수 "왜색 짙다" 싹둑 잘라내

수종 선택을 잘못해 나무가 말라 죽는가 하면 수십년 된 조경수를 '왜색 성향'이라는 이유로 베어내는 등 나주시 조경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06년 영산포 지구 경관 조성을 위해 1억3천700만원을 들여 각종 가로수를 식재했다.

시는 국도 13호선인 영산포 노인복지회관에서 이창동 삼거리까지 도로변에 종려나무 41그루를 심었으나 심은 지 2년만에 12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후와 토질이 맞지 않아 말라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공회사 측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고사 원인에 대한 분석없이 또 다시 같은 나무를 심으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또 구 역사를 청소년수련관으로 꾸미면서 수십년 된 히말라야시다를 비롯한 주변 나무들이 왜색 성향에 주변 건축물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잘라냈다.

전문가들은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존 나무를 살리려는 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청소년수련관은 역사성이 있는 곳으로 조경업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시 관계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송월동 어린이 100여명 나주 문화유적 답사활동

나주시 송월동 어린이 100여명이 지난 24일 나주의 주요 유적지를 돌아보는 어린이문화유적 답사활동에 참가했다.

송월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경상)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수업이 없는 토요일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광산구 '개방형 사무실' 운영

사무실 벽 허물고 통유리 설치

광산구가 '개방형 사무실'을 운영, 공무원과 민원인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지역경제팀, 청소행정팀 등 7개 팀이 자리한 청사 4층의 사무실 벽과 출입문을 헐고 통유리를 설치해 외부에서 사무실이 훤히 보이도록 했다. 〈사진〉

구는 개방형 사무실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정보 교류와 팀워크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민원인은 "유리를 통해 내부가 보여 담당자 자리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게 됐으며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도 더욱 친절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개방형 사무실을 전 부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